

국가연구정보협의회

유수현 간사




(<http://www.korina.org>)

국가연구정보협의회(이하 국정협)은 전국의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을 연계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단체이다. 2001년도에 “문헌정보유통협의회”로 발족하였으며, 2002년 12월 17일에 “국가연구정보협의회”로 명칭을 변경, 2003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그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성대학교 정진식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회원기관은 총 165개 기관이다.

국정협은 국내의 연구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도서관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두 차례 워크숍을 개최하여 회원기관간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2004년 4월 춘계워크숍에서는 연구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인 오픈액세스를 국내에 소개하였으며, 6월에는 국내 연구정보 유통현안에 대한 개선책 강구를 위해 20개 이사기관의 도서관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9월에는 오픈액세스의 실질적인 사례와 동향을 통해 학술정보 공동 활용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는 지식정보세미나를 춘계워크숍과 함께 개최한 바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연구정보 활용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2004년도부터 회원기관에게는 KISTI 원문제공서비스를 국내 최저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KISTI 지식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부설되어 있던 협의회 홈페이지를 독립하여, 독자적인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새로이 개설한 복본자료교환센터는 정보자원의 공유를 통해 회원기관간의 중복소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3년도에는 국내 505개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연속간행물 목록을 CD-ROM으로 담아 내었으며(학술잡지 국가종합목록 on CD), 현재 국정협 홈페이지는 물론, KISTI 지식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웹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국가연구정보협의회는 연구정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동참하는 회원기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향후에도 회원기관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를 실시하고, 정보관리 분야와의 공동 학술포럼을 개최함으로써 협의회 명칭 그대로 국가의 연구정보를 위한 대표적인 협의회로 발전하고자 한다. 

[문의 : 간사 유수현, 전화 : 02-3299-6102, 전승 02-3299-6109, e-mail korina@kisti.re.kr, homepage: <http://www.korina.org>, 주소 : (130-74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식정보센터 내]

어린이도서관연구소

한상수 _ 소장

최근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동안 어린이도서관이 그 역할의 중차대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홀대받았다는 점에서 볼 때 이제서야 제 자리를 찾아가는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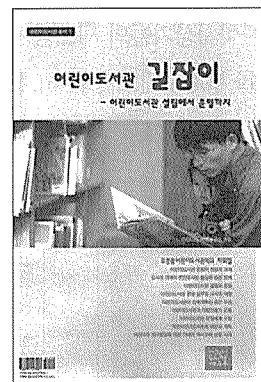
어린이도서관의 역사를 생각하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아주 당혹스럽기조차 하다. '기적의 도서관'이 불과 1년여만에 7개관이 건립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에서 2006년까지 건립 예정중인 어린이전문도서관만 해도 17개관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어린이전문도서관 건립을 발표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도서관이 늘고 있다. 신설 도서관의 경우 가장 좋은 위치에 어린이실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학교도서관도 교육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는 등 꾸준히 개선되고 늘어나고 있다. 또한 민간에서도 교회와 시민단체, 아파트 단지, 각성한 개인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도서관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로 어린이를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아주 반가운 일이지는 하지만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느닷없이 펼쳐진 상황이라서 우려되는 점이 적지않다. 문제는 이러한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어린이도서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운영이라 할 수 있다. 운영을 맡은 사람들이 어떤 의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새로 생기는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가에 따라 해당 어린이도서관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생겨나거나 활성화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들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체도를 정비해야 할 시기이다. 양적인 확대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만큼 이러한 어린이 서비스 중심의 도서관들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내실을 기하며 내용을 채워가는 노력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어린이도서관 연구소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연구하고 실무에 적용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것에 비해 현장 사서들이 참고할만한 책이 별로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구소에서는 최근에 『어린이도서관 길잡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연구소가 의욕적으로 펴내려고 하는 <어린이도서관 총서>의 첫 번째 책으로 기획된 이 책에는 어린이도서관 운동의 전망과 과제, 운영 실무와 사서의 역할, 건축계획과 공간 구성, 도서관 운영체계 수립, 문화 프로그램 기획, 어린이 독서교육 등 어린이도서관의 설립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앞으로 어린이도서관 연구소는 연구된 성과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어린이 서비스 담당자들에 대한 실무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도서관 연구소가 우리나라 어린이도서관 운동과 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 발전에 꼭 필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문의 : 소장 한상수, 031-929-5768, 전송 : 031-929-5769e-mail : childlib@hanmail.net, 주소 : (411-837)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 2동 730번지 우인아크리움빌 1차 1110호]